사라질 위기서 다시 태어난 성보를 만나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교중앙박물관, '수보회향' 4월 4일~6월 30일 제1 · 2전시실

10년간 보존처리해 온 성보 47점 공개…'용주사 감로도' 눈길

1790년(조선 정조 14)에 조성된 〈용주사 감로도〉는 1984년 도난됐다가 2018년 환지본처했다. 도난 당시 상하 회장이 절단됐으며 도난 후 세로로 말아 보관하는 과정에서 세로 꺾임이 많이 발생해 바탕 재질의 2차적 손상까지 발생됐다. 2021년 습식 클리닝 후 기존 배접지를 제거하고 결손부를 메운 후 새롭게 배접하는 보존처리가 실시됐다. 처리 후 기존에 제거된 상축과 하축을 새롭게 조성해 부착했으며 굵게 말아 축과 보관상자를 제작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했다. 훼손돼 사라질뻔한 위기에서 전문적 보존처리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다.

비지정 문화재로, 관리 사각지대에서 재탄생한 성보들이 대중에 선보인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 스님)은 4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박물관 제1·2전시실에서 기획전 '수보회향(修補廻向), 다시 태어난 성보'를 개최한다.

수보(修補)란 보존처리 작업을 뜻한다. 조계종은 문화재청과 2014부터 비지정문화재이긴 하지만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는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보존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해왔다.

이번 기획전은 10년간의 작업을 결산하는 자리다. △가치의 재발견 △진면목으로의 회복 △진단하고 예방하다 등 3개의 주제로 그동안 보존처리한 35건 47점이 공개된다. 성보 수보에서 회향에 이르는 과정을 담은 설명글과 영상도 함께 구성됐다.

〈용연사 불설대보부모은중경〉 〈천은사 팔상전 영산회상도〉 〈파계사 치성광불도〉 〈방장유산시첩〉 〈대방광불화엄경 권제79-81〉 〈도갑사 명부전 목조도명존자입상·목조무독귀왕입상〉 등 대중에 처음 공개되는 성보도 다수 전시돼 눈길을 끈다.

이번에 공개되는 수보를 마친 모든 성보는 국가·시도 지정 문화유산(국보, 보물, 유형문화유산 등)이 아닌 비지정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더한다. 비지정 문화유산은 지정 문화유산보다 상대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훼손을 입은 경우가 많은데, 사업을 통해 이러한 성보를 발굴하고 조성 당시의 모습을 되찾도록 지원했다는 점에서다. 성보의 가치를 회복하고 후대에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은 매우 의미있게 평가받고 있다.



▲성보문화유산 보존처리 모습.

◀ 훼손돼 사라질뻔한 위기에서 전문적 보존처리로 다시 태어난 〈용주사 감로도〉. 1790년, 화성 용주사효행박물관 소장.

특히 1724년 조성된 순천 〈송광사 웅진당 석가모니후불도〉는 수보작업 후에 그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됐다. 1790년 조성된 〈쌍계사 팔상전 신중도〉도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은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대중이 멸실 위기에서 다시 태어난 성보를 친견함으로써 한국 불교문화의 수승함과 환희심을 몸소 느낄 수 있길 바란다"면서 "성보를 수보하는 지난하고 치열했던 일련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훼손의 과오를 범하지 않고 성보 수호에 진력하기 위한 마음의 경책이 되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앞으로 멸실 위기의 성보를 더욱 주목해 전시와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통해 부처님 법향이 성보를 통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정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획전 개막식은 4월 3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개막식에서는 그간의 활동을 치하하고 사업 시행 10년을 기념하고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115개 불교 기관에 2억7850만원 지원

진흥원, 제8기 지원사업 선정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불교 기관 및 단체 115곳에 2억7850만원을 지원했다.

진흥원은 3월 25일 '제8기 불교 기관·단체 지원사업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진흥원은 불교 기관·단체의 포교 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질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행(수행), 학술, 문화, 포교, 복지, 미디어 등 6개 분야 단체를 선정해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제8기 지원사업 선정 대상은 '불교 신행(수행) 실천' 분야에 가야산 선원 등 12곳, '불교 학술세미나 및 학술지 발간' 분야에 가야문화진흥원 등 19곳, '불교 문화 행사' 분야에 경기불교문화원 등 23곳, '불교 복지 활동' 분야에 보리수아래 등 9곳, '불교 포교 활동' 분야에 광주파라미타청소년협회 등 47곳, '불교 미디어 포교 활동' 분야에 불교상담연구소 등 5곳이다.

진흥원은 "불교 기관·단체 지원사업은 대내외적으로 포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각 분야의 기관·단체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작지만 큰 원력을 바탕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각 분야의 소모임이나 단체를 적극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불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수많은 불교 단체가 불교의 싹을 틔우는 풀뿌리불교의 토대를 마련해 이 시대를 밝히는 새로운 불교 중흥의 꽃을 피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불교 기관·단체 지원사업 공모'를 매년 2회 실시하며, 선정된 기관 및 단체의 당해년도 사업추진에 대해 연 1회 지원한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474개 단체에 총 10억9247만원을 지원했다. 제9기는 올해 6월에 지원 대상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신혼부부 위한 사랑 가득 템플스테이

불교TV · 대원사 '절로 갈까'

부부 10쌍 대상으로 소통시간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를 위한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BTN불교TV(사장 구본일)와 가평 대원사(주지 선일 스님)가 4월 27~28일 대원사 경내에서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를 위한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3년 4분기 대한민국 출생률 0.65명으로, 인구절벽이라는 심각한 위기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가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육체적 휴식과 정서적 안정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10쌍을 초대해 신혼부부를 위한 커플 레크리에이션, 소통과 공감특강, 스님이 들려주는 부모이야기, 스님과의 포행, 차담, 마음나눔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전문 MC 심목민 아나운서와 김경선 하제심리상담연구소장, 대원사 회주 보인 스님이 각각 맡았다.

'절로갈까'는 종교에 상관없이 신혼부부 또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누구나 3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불교TV 홈페이지 붓다회 공지사항이나 전화 1855-0108(BTN불교TV 붓다회 콜센터)로 하면 된다.

김내영 기자

"내 성격 유형에 어울리는 신행은?"

조계종 포교원, 에니어그램 '부처님 마음, 내 마음' 발표

안내책자, 검사 링크 개발

9가지 유형별로 신행 제시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에게 맞는 신행은 무엇일까?"

각각의 성격 유형별로 맞춤 신행과 명상법을 제시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삶의 올바른 성장을 이끄는 안내서가 개발·보급돼 주목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 스님)은 에니어그램을 기반으로 한 성격유형 안내서 '부처님 마음, 내 마음'을 개발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포교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이윤정 마인드코칭연구소장과 간단한 심리검사와 불교 콘텐츠를 접목한 연구에 돌입, 그 결과인 '부처님 마음, 내 마음' 안내책자(사진)와 리플릿, 성격유형 검사 링크(www.bulgyoenneagram.co.kr) 개발을 완료한 것.

성격유형 검사는 45개의 불교적인 질문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문항을 선택해 성향·성격을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각 유형별 안내에는 성격의 특징과 대화 방법, 어울리는 직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언, 추천 신행 등이 담겼다. 특히 부처님 제자를 각 유형 대표 인물로 설정하고, 초기 경전에서 인용한 부처님 말씀을 첨가해 스스로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특징이다.

3월 28일 열린 '부처님 마음, 내 마음'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윤정 마인드코칭연구소장은 "현대사회를 살아갈 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많다. 늘 타인과 비교하며 스스로가 도태됐다고 비판하기도 한다"며 "이번 '부처님 마음, 내 마음'은 내 안에서 어떻게 집착을 버리고 잠재력을 일깨워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길을 일러준다"고 말했다.

포교연구실장 문종 스님은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는 것은 물론 상대방을 이해하는 소통의 도구로 젊은 세대들에게도 재미있고 유익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포교원은 향후 '부처님 마음, 내 마음'을 신행 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사찰과 종립학교 등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질문과 방식을 개선하고, 젊은 층 포교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내영 기자



佛性 受戒 共同體
불성의 자리에서 수계 공동체를 이루는
金剛戒壇
보살계산림
普 薩 戒 山 林

입재 2024년 4월 13일(음 3.5) 토요일
회향 2024년 4월 15일(음 3.7) 월요일

동참금 | 5만원 접수처 | 화엄전 전화 055-381-1288 팩스 055-372-7010
차량안내 | 부산지하철 온천장역 1번 출구 앞 오전 8시~9시

불지종가 ·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